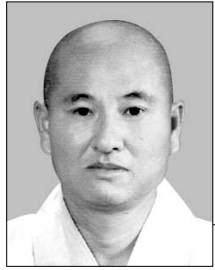


홍콩이 영국의 지배 하에 있던 시절 홍콩과 중국 본토의 경제적인 심천에는 홍콩 땅 구룡반도를 향해 하나의 거대한 선전 광고탑이 서 있었다. 그 광고탑은 '코카콜라(coca cola)'에 대한 광고탑이었었는데, 여기서 코카콜라를 중국말로 '쿠자쿠라이(苦加苦來)'라고 표기하고 있었다. 표의문자인 중국어는 외래어를 표기할 때 몇 가지 원칙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발음이 비슷해야 하고 또한 뜻이 근접해야 하는 것이다. 당시 중국인들이 생각하기에 코카콜라는 서구 자본주의 상징적 제품이기에 '고통을 더하고, 고통이 온다'는 부정적 의미로 쿠자쿠라이(苦加苦來)라고 적은 것이다. 이러한 내용의 코카콜라 광고문구가 중국이 개혁개방의 노선으로 전환되고 또한 홍콩이 반환된 이후에는 내용이 달라졌다. '고통을 더하고 고통이 온다'는 의미의 '쿠자쿠라이(苦加苦來)'가 '입맛에 맞고 즐겁다'는 뜻을 가진 '커커우커러(可口可樂)'로 바뀐 것이다. 같은 코카콜라가 자신들의 입장에 따라 그의 미가 백팔십도로 달라진 것이다.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인 독도를 일본의 땅이라고 억지를 부리며 급기야 시미네현 의회가 '다케시마의 날' 제정 조례를 통과 시키는 망동을 부리더니 또한 고질적인 역사교과서 왜곡으로 우리의 분노를 촉발시킨지 한달여가 지났다. 이제는 고이즈미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참배, 역사왜곡, 동중국해 가스전 개발을 둘러싼 일본의 태도에 불만을 품은 중국시민들이 광분하여 길거리로 나서고 있다. 일본의 우익세력들이 한일갈 혹은 중일갈의 불화가 불을 보듯 뻔한 민감한 사안들에 대해 패색적 국수주의로 일관



불자 세상보기
월 암
경주 칠불암 회주 · 본지 논설위원

중국과 일본의 속셈읽기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공고한 미일동맹에 바탕을 둔 패권주의의 발로이다. 여기에 맞서고 있는 중국의 입장 또한 패권주의의 한 단면이 지나지 않는다. 천안문 사태 이후 그 어떤 이유에서든 중국에서 대중시위는 생각하기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지금 중국에서는 중국에 오래 머물렀던 사람으로서의 상상하기 어려운 시위가 각지에서 연일 터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일본 측이 주장하는 것처럼 관제대모라고 치부할 수는 없겠지만 중국 정부에서 일정부분 방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다. 상하이(上海)와 항저우(杭州) 등 전국 주요 도시에서 10만 여명의 시민이 참가한 대규모 반일시위를 방치하고 있는 중국정부의 속셈은 무엇인가. 이 또한 포스트 아메리카를 향한 또 하나의 패권주의가 분명하다. 사실 중국인들의 일본에 대한 감정은 식민지

배하에 있었던 우리 한국 사람이 갖는 그것과 거의 다르지 않다. 소위 '남경대학살'로 불리는 일제의 만행에 공분하지 않는 중국인은 드물다. 이러한 역사적 만행에 대한 필연적 악감정이 심층에 깔려있는데다 역시 역사왜곡으로 불거진 반일시위는 일본의 제국주의적 패권야욕에 대한 분노의 표출일 것이다.

그러나 중일갈의 외교적 분쟁은 서로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그리 오래 가지 않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반일 시위는 일본이 은근히 바라는 것처럼 공산당에 대한 체제도적으로 발전하지 못할 것이다. 소정의 목적이 달성되면 '쿠자쿠라이(苦加苦來)'는 언제든지 '커커우커러(可口可樂)'으로 바뀌어 질 수 있는 것이 중국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것에 있었던 우리의 입장은 있어버리고 중국의 반일시위가 마치 우리의 분노를 대

신 분출해주고 있는 양 통쾌해 하고, 한국경제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등의 근시안적 안목으로 접근하는 태도는 결코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다. 왜냐하면 중일갈의 문제는 언제든 한중갈의 문제로 돌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고구려사 중국역사 편이라는 '동북공정'은 지금도 현재진행형이며, 통일한국 이후 간도문제 등 국경분쟁의 소지는 엄존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찌 우리가 바다 건너 불국경을 즐기고 있을 수만 있겠는가. 한국의 입장에서 볼 때 역사왜곡과 영토분쟁은 일본과 중국이 똑같은 상대국이다.

일본과 중국은 하루 빨리 세계평화에 역행하는 패권야욕을 청산하고 역사왜곡에 대해 솔직히 시인하고 사과해야 한다. 그리고 재발방지를 위해 3국이 참여하는 역사공동위원회를 가동해야 할 것이다. 한중일 3국의 공통분모로 작용될 수 있는 소위 3국 불교계의 '황금유대'의 정신을 확대하여, 호혜협력의 강화로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독도는 우리 땅이요, 고구려사는 우리의 역사인 것이 엄연한 사실이다. 하지만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국제사회에서 사실이 사실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정확한 역사안목과 역사연구가 선행되어야 하며 힘이 원동력이 되어야 한다. 취직을 위한 입시위주의 교육에서 탈피하여 역사교육이 전 국민의 필수가 되어야 한다. 역사적 안목을 가진 인재에 의한 힘의 축적만이 진정한 균형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확고한 역사관이 없는 민족과 국가는 도태될 수밖에 없으며, 힘은 '사관(史觀)의 정립'에서 비롯될 수 있다.

불자의 눈

진각종 제27대 통리원장으로 회정 정사가 선출됐다. 사실이 정도의 뉴스라면 '사실'이라는 형식으로 정색을 하고 바라봐야 할 사안이 아닐지도 모른다.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시스템이 완벽한 조직이라 할지라도 수장의 색깔에 따라 조직의 명운이 갈릴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진각종의 새 통리원장을 주목하는 까닭은 진각종의 독특한 위상과 정체성에 있다. 한국불교의 대표적인 '재가종단'이라는 것과 '생활불교'를 주창하며 비법한 실천을 하고 있다는 점이 바로 그것이다.

'생활 불교'란 무엇인가? 이것만 가지고도 수백편의 학위논문이 가능할 만큼 광범위한 질문이지만 소박하게 정의하자면 '살 속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이다. 부연하면 '시대의 근기'에 맞는 방편의 설정과 실천이다.

이 시대의 근기는, 비유컨대 '체력'은 좋지만 '체력'은 허약한 비만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 허약은 무엇인가. 소

새 통리원장에 거는 기대

외와 빈곤이다. 그런데 참으로 불행한 점은 그 어떤 제도도 그것을 완벽하게 해결할 수 없다는 데 있다. 종교와 시민사회 단체의 할 바가 바로 그것이다.

진각종은 '복지' 문제에 종단의 모든 역량을 투입할 정도로 '불법(佛法)의 사회화'에 열심인 종단이다. 현재 진각종 사회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 시설은 12곳이고 어린이집만도 10개에 이른다. 국제구호 및 협력 사업도 활발하다. 그 기초를 세우고 현재와 같은 진각종의 위상을 다진 분 중 한사람이 새 통리원장으로 선출된 회정 정사다. 회정 정사는 25대 성초 통리원장 당시(1997~2001) 총무부장으로 대북교류와 사회복지재단 설립을 주도 한 바 있다. 회정 통리원장에 거는 기대의 핵심은 바로 '사회복지'와 '남북통일'을 위한 더욱 성숙된 실천이다.

사회적으로 변화의 물결이 거센 이때, 강한 추진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새 통리원장 회정 정사에게 거는 기대가 내외적으로 큰 것은 당연하다. 진각종이 그간의 정체 분위기를 일신하고 새 통리원장을 중심으로 일치단결해 종단 내실은 물론 한국불교가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데 큰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

특별기고

콘클라베와 갈마

신성현 (동국대 불교학과 교수)



4월 19일, 로마 바티칸의 시스티나 성당 굴퓌에는 흰 연기가 피어올랐고 곧이어 성 베드로 대성당의 종이 울렸다. 세 교황이 선출되었음을 알리는 신호였다. 요제프 라칭거(76) 추기경(독일)이 제265대 가톨릭 교황으로 선출된 것이다.

그는 추기경단이 참석한 콘클라베라는 회의의 통틀어 확정되었다. 이번 교황선출을 둘러싸고 나의 관심을 집중시킨 것은 누가 새 교황으로 탄생하느냐보다는 바로 이 콘클라베였다.

열쇠로 잠근다는 라틴어에서 유래한 콘클라베가 시작되면 일단 후임 교황이 선출될 때까지 추기경들이 모인 건물의 청동문은 모두 봉쇄되는데, 이는 모든 문과 창문을 밖으로 봉쇄하면 관행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콘클라베는 청동문이 상징하듯 비밀회의의 그 자체였다. 콘클라베는 80세 이하의 추기경에 의하여 직사각형의 투표지에 매일 오전과 오후 두 차례씩 3분의 2가 나올 때까지 투표한다고 한다. 이처럼 콘클라베는 권위와 비밀 그리고 폐쇄를 상징한다. 교황이 지니는 종교적 권위와 권능은 바로 여기 콘클라베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가톨릭이 콘클라베의 전통을 가지고 있다면 불교는 갈마의 전통을 가지고 있다. 갈마는 의견

을 결정하는 회의를 말한다. 콘클라베가 단지 교황만을 선출하는 회의라면 갈마는 승가에서 생기는 크고 작은 모든 일을 결정하는 모임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불교 승가에서는 교황과 같은 권위적 존재를 인정하지 않기에 교황이나 추기경들에 의해 결정되는 상황들은 모두 이 갈마를 통하여 결정된다.

구족계의 의식이나 특정한 소임을 맡을 비구

여기에는 세속의 나이나 법랍, 지위고하 등에 상관없이 그 누구일지라도 동등하며 평등하였다. 결코 특정한 지위에 있는 자도 없었고, 좌지우지할 결정권을 지니는 자도 존재하지 않았다. 소수의 단합에 의한 전횡도 제도적으로 허용되지 않았다.

승가의 비구 전원이 참석한 자리에서 만장일치로 모든 사항을 결정하는 것이 갈마의 기본 원칙이기 때문이다. 한사람일 지라도 참석하지 않

어나야 하기 때문에는 밝은 한 사람이 있어 반대한다면 옳지 않은 안은 결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런 갈마의 원칙 때문에 갈마가 자주 진행되지 못하고 사안이 결정되지 못했던 것은 아닐까? 다양한색의 구성원들이 합의의 이루어 내는 것은 지금이나 예나 쉽지 않으며 더구나 전원이 찬성하길란 더욱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의 의견을 중시하는 회의에서 오히려 구성원들은 자신 각자의 생각·의견에 대해 보다 신중하게 처신하기에 그러한 경우는 별로 발생하지 않았다.

갈마에서는 침묵으로 찬성을 대신한다. 많은 구성원들이 모였다고 해서 번잡하거나 시끄럽지도 않았다.

이처럼 여법한 갈마 절차로 정당하게 내려진 결정은 승가에서 최고의 권위를 지닌다. 불교에서는 교황과 같은 절대적 권위나 비밀스런 절차를 의한 신비감은 존재하지 않지만, 법과 율에 따라 갈마에서의 소수의 의견까지도 존중된 결정은 그 어떤 절대적인 권위보다도 힘을 지녔던 것이다. 우리는 갈마에서 평등과 개방이라는 불교의 상징을 본다.

절대적 권위와 비밀스런 절차

의 선출, 그리고 승가에서 발생한 쟁사의 해결 등 크고 작은 모든 일을 결정하였으며, 또한 승가의 중요한 정기 행사인 포살이나 자자 등도 모두가 갈마를 통하여 진행되었다.

갈마는 구성원인 비구들 전원이 참석한다는 점에서 그 특징을 찾을 수 있다.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만이, 깨달은 자만이 참석하는 것은 아니었다. 갈마는 비밀스럽게 진행되지는 않았고 문을 걸어 잠그지도 창문을 봉쇄하지도 않았다.

일정한 지역의 모든 비구가 열려진 장소에서 모여 공개적으로 진행되었다.

으면 진행시키지 않으며, 또한 한사람이라도 반대를 하면 결정되지 않았다.

병 등의 이유로 참석할 수 없는 자가 생길 경우는 회의에서 어떠한 결정이 나든 나중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뜻을 다른 비구를 통하여 승가에 알리려 한다. 이를 여유(與欲)이라고 한다.

갈마는 구성원 개개인의 존재와 고결한 의견을 다수결이라는 편리한 원칙을 구실로 무시하지 않았다. 선동주의이나 감성주의에 호소해 의사가 결정될 수가 없었다. 전체의 전통을 얻



소중한 인연을 위한 정성

몸에 좋은 조청으로 심신을 새롭게 한다

山寺 조청

전통 비법으로 산사에서 스님께서 직접 만드신...

고품질 장수 발효식품

- ◆ 산寺 조청은 공해시대, 무엇을 먹어야 안심할까 고민하는 당신에게 참 좋은 인연입니다.
- ◆ 산寺 조청은 산천 조목의 뿌리 잎, 줄기, 열매의 영양소를 고스란히 뽑아내어 우리전통의 조청으로 고아 낸 고품격 장수 발효식품입니다.
- ◆ 산寺 조청은 한의사 이기용 원장과 약초연구가 김지문 거사님의 자문을 받습니다.
- ◆ 산寺 조청은 비구니 스님들의 청정심과 지극한 정성으로 만들어 집니다.

<p>◆ 산寺 참웃 조청</p>	<p>어혈, 냉증, 위장장애, 피로 독소, 적체의 해소, 신경조율, 향암, 원기회복등에 기여</p>	1.2kg
<p>◆ 산寺 청미래 조청</p>	<p>중금속해독, 풍습제거(부종), 사지관절, 중풍과 암 예방에 탁월한 기여</p>	1.2kg
<p>◆ 산寺 기침량 조청</p>	<p>상기, 기혈조절, 손발냉증, 보혈, 혈액순환에 기여</p>	1.2kg
<p>◆ 산寺 약도라지 조청</p>	<p>기관지, 천식, 기침, 거담, 배농작용, 폐기능, 호흡기질환, 피로회복등에 기여</p>	1.2kg

● 주문 및 문의 : 대한불교조계종 금융사 054)372-3166, 372-5721

● 입 금 처 : 농협 727077-52-056761(현순희)

맑은 마음 깊은 정성

山寺 조청원

당신의 맑은 피부를 위한

청정생기세심비누

◆ 특허 : 제0482418호(식약청 허가제품) 발명자 : 김지문

◆ 성분 : 천연진주가루, 콜라겐, 카마모일, 구기자, 당귀 등 천연생약 10여종 및 팜유와 라벤다 천연오일향

◆ 효능 : 피부에 무자극으로 보습효과 향균성 뛰어난, 아토피 피부염, 여드름, 기미, 각질제거, 발바닥 갈라짐 방지, 피부알레르기, 두피(탈모방지), 세안 및 미백효과 탁월하며 청정한 생기력은 마음까지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증상에 따른 세심비누 사용방법

▶ 세면 및 샤워 할 때 (각질 및 건조피부) 비누칠을 하고 30초 이상 머금고 물로 충분히 씻어내어 2-3분 후에 물로 씻어 줍니다.

▶ 아토피성 피부 및 피부 알레르기 (미백, 여드름, 기미, 주근깨) 비누에 물을 문혀서 환부에 직접 비누칠하고 충분히 머금고 10분 이상 지난 후 씻어 줍니다.

▶ 탈모 및 비듬 (미백, 여드름, 기미, 주근깨) 머리를 한번 감고, 다시 비누칠을 하여 두피에 거품을 충분히 낸 후, 5분 이상 지난 후 씻어 줍니다.

▶ 무좀 및 습진 (발 뒷꿈치 갈라짐) 비누에 물을 문혀서 환부에 직접 비누칠하고 잘 스며들도록 오래 머금고 씻어 내거나, 그냥 잠을 자도 됩니다.

■ 제조원 : (주)海仁우리
 ■ 100g × 4개 1Box 42,000원 ■ 전화 : 054)372-3166
 ■ 입금처 : 농협 727077-52-056761(현순희)

맑은 마음 깊은 정성

▶ 판매원 : 山寺 조청원

※ 청정생기 세심 비누를 꾸준히 사용하시면 피부가 맑고 젊어집니다.